

2008년도 강릉시 예산개요

1 재정운용 여건

- 내년도 국가 경제가 5%내외의 실질성장 예상됨에 따라 예산편성을 위한 총재원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,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등 국가 복지 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어 경직성 지출 소요가 증가할 전망
 - 우리 시는 지역산업 구조(1차산업 0.4%, 2차산업 17%, 3차산업 82.7%)가 취약하고 자체세입 기반이 근원적으로 열악하여 전국 시도위 평균자립도(39.5%)에 크게 못미치는 실정임
 - 지방세 수입은 주택 과표현실화율(60%→65%) 인상등 보유세(재산세)강화에 따라 자주재원의 증가폭은 예년 수준을 조금 상회할 것으로 예 측됨
 - 이에 비해 세출소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으로 법정 필수 경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그동안 발행한 재해복구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상환시기 도래 등 법적·경직성 경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
 - 기존 문화·복지·체육시설등에 지원되는 운영비와 주민자치센터, 청소년 수련관운영비 등을 감안할 때 세출 수요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되고, 투자사업비는 지역경제 활성화, 대규모 SOC사업 마무리, 도시기반 확충 사업과 역점·현안사업 추진등 재정수요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.
 - 특히, 국가의 사회복지 사업 확대 경비인 기초생활보장비와 보육예산의 경우 2006년 대비 88억원이(31%) 급증하는등 지방이양사업과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분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가용재원 부족으로 재정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.
- ⇒ 따라서, 증가하는 세출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절감 지속운영 및 지방세 부과·징수와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한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모색하고, 자구책으로 업무추진비 감액편성등 경상적 자체사업 예산편성·집행등에 대한 엄격 심사 등 지속적인 『긴축 재정운영』 노력이 요구됨.

□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계획성 확보

-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고, 국가계획과 상호 연계 운영
- 주요 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의 편성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 반영
 - 『투·융자심사위원회』의 내실있는 운영 및 일정규모의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이행(총사업비 500억원이상, 지방청사등 건축물은 100억이상)

□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

- 지방세,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부과·징수를 통하여 자체수입 증대 기여
 - 세원의 발굴 및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, 업무의 정보화 추진
-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준수
 - 선심성·낭비성 예산편성 금지, 자치단체 사무와 관련 없는 경비 지출의 금지,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등
- 경상적 경비의 실·과·사업소별 『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』 운영으로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예산의 탄력성 제고
 - ※ 3개목(기간근로제등 보수, 일반운영비, 여비) : 부서별 자원배분 추후통보
- 재정운용 과정에서 부패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
 - ※ 클린카드(clean card)제 시행, 내부통제 시스템 개발 및 직장 교육실시 등

□ 효율성 제고와 성과관리 강화

- 사업예산제도를 내실있게 운영 정착시켜 재정운용 성과 관리
 - 성과목표에 근거한 사업 중심 예산 편성 및 성과목표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 자원배분에 용이한 예산체계 구축운영(사업중심의 예산편성과 성과관리)
-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효율적 경영체제 확립
 - ※ 재무상태 및 재정운영상황 보고

□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주민참여 활성화

- 재정운용 상황을 매년 1회 이상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공시
→ 『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』의 내실있는 운영, 경상경비의 증감 내역을 홈페이지나 지역신문을 통해 공개 등
-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 및 공개확대
→ 예산편성과정에 인터넷설문조사, 간담회 등 『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』 정착
※ 예산편성관련 주요내용에 대하여 각계전문가, 시민단체등 관련 당사자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칠 계획임 (설문조사, 인터넷조사, 시민단체 간담회등)
- 일반회계, 특별회계, 기금의 통합적 운영·공표로 효율적 재정관리
※ 지방재정통합분석을 매 회계연도마다 실시·공표

□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의 효율성 극대화

-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등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 시책사업은 적극 발굴 재원 범위내에서 효율적 재원배분
- 지속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시급성·효율성등을 감안 투자 우선순위에 의해 가용재원 범위내 조정 투자
- 주요 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의 편성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 반영
- 내년도 마무리할 사업과 추진중인 현안사업의 전략적 집중 투자로 우선 마무리

□ 투자사업비의 안정적·계획적 편성관리

- 투자사업은 반드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만 예산요구 및 편성실시
- 투·융자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, 재검토, 부적정판정을 받은 사업을 예산 요구 시 예산편성 제외 (사업성·타당성등 사전심의 강화)